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폐지 주장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 새 쟁점 야당, 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 논의 미국도 가상자산 ‘디지털상품’ 분류 ‘증권거래’ 기반 규제시 경쟁력 하락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1분기 내 입법절차 돌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와 여당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과세 폐지 등 가상자산 관련법의 향방이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클래리티법’에 거래소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국내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기본법’ 입법 제동

26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1분기 내 입법절차 돌입을 목표로 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 논의를 순연했다. 중동사태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했던 입법 시계도 하반기까지 밀려났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세미나에서 김명식 조선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제동이 걸리자 입법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내년 초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했으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폐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지난 2020년 마련됐다.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과세는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글로벌 정합성을 전면 폐지를 위한 근거로 제시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했는데, 보다 엄격한 ‘증권 거래’에 기반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당초 지난 2025년 1월부터 주식시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 ‘지분 제한’ 위헌 소지…美 법안도 변수

이달 초까지 주요 입법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도 재부상했다. 당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정부안에 포함됐던 해당 내용이 과잉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한국헌법학회는 최근 세미나에서 “민간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소유권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시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의 규제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미국의 ‘클래리티법(Clarity A

ct·명확화 법안)’도 변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거래소의 이자지급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거래소는 간접적인 이자지급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의 새로운 초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포함해 진행중인 만큼, 국내 입법 방향성에도 해당 내용의 반영이 불가피해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우선순위가 밀려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야 관련 입법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입법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 2기 체제 출범

오는 2029년 3월까지 3년 연임 선임 사외이사에 박종복·임승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며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신한금융은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3월까지다.

진 회장은 이번 의결로 오는 2029년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 신한금융을 이끌게 됐다. 진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가능 이익 기반 마련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투자자 소통 강화 등을 인정받아 큰 이견 없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은 진회장의 회장 연임을 추천하며 “지난 3년간 신한금융 회장으로서 균형감 있는 위기 관리와 사업 추진 역량을 발휘해 역대 최대 손익을 달성하는 동시에 디지털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그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밸류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이행해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선임 사외이사로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과 임승연 국

민대학교 교수가 신규 임명됐다. 과수근·김조설·배훈·송성주·최영권 등 5명의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자본준비금 9조9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9조 8659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향후 2026년 결산 이후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배당금의 100%를 수령할 수 있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 안건도 주총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동양생명 대구지점 직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 대구지점, 목표 달성률 118% 달해

설계사 52명... 8개월간 24명 위촉 100차월 베테랑 설계사 14명 근무

동양생명 대구지점이 안정적인 조직확장세를 바탕으로 전사의 전속 채널역량 강화 전략을 현장에서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동양생명 대구지점은 지난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구지점 소속 설계사는 총 52명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9명 늘었다. 특히 최근 8개월간 신규 위촉된 설계사만 24명에 달한다.

양적 성장은 실질적인 영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대구지점의 보장성 월납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인 101% 증가했다. 특히 지점 목표 달성률 역시 2024년 104.8%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평균 117.6%까지 치솟는 등 양적 팽창에 걸맞은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다.

도약의 배경에는 지역 밀착형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험학교’는 예비 설계사들에게 전문 지식과 직업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여기에 매니저들의 ‘일일 밀착 코칭’과 세

심한 활동 관리가 더해지며 신인 설계사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성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탄탄한 육성 시스템에 더해진 ‘세대간의 조화’는 지점의 조직력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대구지점에는 100차월 이상 활동한 베테랑 설계사가 14명에 달한다. 이 중 5명은 동양생명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한 ‘살아있는 전설들’이다.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노하우가 신인 설계사들의 패기와 결합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나누는 건강한 지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하민수 지점장의 리더십도 한몫했다. 2025년 부임한 하 지점장은 ‘자기주도적 영업 문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설계사 스스로 주간 활동을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점검하도록 독려해 자발적인 활동량 증대를 이끌어냈다. 지점 차원에서 주 2회 상품 및 실무 교육을 지원해 현장의 전문성을 꾸준히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지점은 향후 동양생명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보험금융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하 지점장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빈대인 회장, BNK금융 3년 연임 성공

경기문화 속 안정적 실적유지 성과

BNK금융지주는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개최한 주주총회에서는 빈대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며 빈대인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빈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와 경기 둔화 등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구축한 평가를 받아 재선임됐다. 빈대인 회장은 오는 2029년 3월까지 BNK금융을 이끈다.

이사회 구성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전체 구성의 절반 이상을 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전면 배치해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BNK금융지주는 주주의견이 경영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한다.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1주당 375원의 결산배당을 승인했으며, 지난해 분기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을 주당 735원으로 확정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전략과 이사회 중심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서울 아파트가격 0.06% ↑ 8주만에 상승폭 소폭 확대

서울 집값 상승률이 8주 만에 소폭 확대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5%)보다 0.06% 올랐다. 지난 2월 첫째주부터 둔화세를 유지하던 서울 집값이 8주 만에 상승폭을 키운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지역이 혼재한 가운데 서울 전체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강남 3구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0.17%)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빙배동 위주로 집값이 떨어졌다. /성채리 인턴기자